

광주시 돌봄 종사자들 근무환경 개선된다

사회서비스원, 이달부터 '근무형태 다양화' 본격 시범 운영 개인 선호 따라 가사·동행·긴급 등 근무 방식·시간제 선택

고령화 사회에 따라 돌봄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환경과 처우가 열악한 상황에서 광주지역 돌봄 제공 인력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근무형태 다양화 시범운영'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근무형태 다양화는 개인 선호에 따라 근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돌봄관리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등을 소지한

돌봄 제공인력을 말한다. 영·유아와 아동, 노인, 장애인, 1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가사지원(취사·청소·세탁)과 동행지원(병원·관공서), 긴급돌봄(가사지원과 동일) 업무를 맡는다.

돌봄관리사는 가정 방문, 건강 관리, 보호자 연락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지만, 역할에 비해 대부분이 '시급제'라는 비교적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왔다.

직업 특성상 긴급돌봄, 민간관련 상황 등 위기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여건에 맞지 않았다.

이해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광주 서구와 북구 종합재가센터에 한정해 전일제 시범운영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민간관련 돌봄서비스에 대한 실적이 2021년 월 평균 216건(1183시간)에서 2022년 397건(1419시간)건으로 83% 가량 증가했다. 이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따른 서비스 양 증가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실적에 따라 서비스원은 광주다움 통합 돌봄이 시작되는 4월부터 돌봄관리사 개인 선호에 따른 근무형태 다양화 방식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돌봄관리사 개인 선호에 따른 전일제(8시간), 반일제(4시간), 시급제, 인력풀 근무형태로 나뉘는 것으로 인력풀은 기존 돌봄과 광주 플러스 돌봄이

적시 매칭되지 않았을 경우 긴급돌봄 관리사들이 투입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시급제보다 적시매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범운영에는 현재 전일제 19명과 반일제 16명, 시급제 11명, 인력풀 41명 등이 참여하고 있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추가적으로 전일제 인력을 북구에 5명, 서구에 2명 투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시간당 1만 1930원의 생활임금 적용, 원거리 교통수당 제공,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조호권 광주사회서비스원장은 "광주광역시 민선 8기 광주다움 통합 돌봄의 성공을 위해 직접 시설인 종합재가센터가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첨병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섬모시풀, 생육환경 따라 폴리페놀 함량 차이 명확



섬모시풀

섬모시풀이 자라는 지역에 따라 폴리페놀 함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전국 6개 섬(울릉도, 독산도, 거금도, 흑산도, 진도, 고하도)에서 자생하는 섬모시풀의 폴리페놀 함량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했다고 4일 밝혔다.

폴리페놀은 식물에 들어있는 화학물질로 강한 항산화와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섬모시풀 100g당 폴리페놀 함량은 고하도(9.3mg)와 진도(9mg)에서 가장 높았다. 울릉도와 거금도는 7.7mg, 독산도 6.3mg, 흑산도 5.8mg 수준이었다.

항산화 활성은 섬모시풀 100g당 울릉도(53mg)와 거금도(52mg)에서 특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섬모시풀이 자라는 환경의 차이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관계자는 "섬모시풀이 자라는 지역별로 함량이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번 연구가 섬모시풀을 지역별로 특화해 개발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광주선수단 전원 메달 고재청·공인숙·박금숙 금2·은1...한국, 8번째 종합우승 '7연패'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에 출전한 광주 선수단이 전원 메달을 획득했다.

4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프랑스에서 열린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통산 8번째 종합우승과 함께 7연패를 달성했다.

특히 국가대표로 참가한 광주 선수단 3명은 컴퓨터 수리(고재청 선수·금메달), 양복(공인숙 선수·금메달), 양장(박금숙 선수·은메달) 분야에서 모두 메달을 따냈다.

지난 1981년부터 시작된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은 장애인 기능수준 향상 및 기능 개발 촉진을 위해 4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 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2차레나 연기돼 2016년 제9회 대회 이후 7년 만에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27개국 420명의 선수가 참여해 44개 직종의 경기가 펼쳐졌다. 우리나라는 34개 직종에 34명이 참여했다.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1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9개로 우승했다.

우리나라는 1981년 일본 도쿄 대회 출전을 시작으로 이번 프랑스 메스 대회까지 모두 10차례 참가, 종합 우승 8회와 7연패(제4회~제10회)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한국 선수단장을 맡은 조항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34명 국가대표 선수들의 불타는 투지와 기술위원 등 지원인력들의 노고가 합쳐진 우리 모두의 승리"라며 "선수단이 열정과 능력을 우리 사회를 위해 마음껏 쏟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산구청소년수련관, '파란불 깜빡' 캠페인

광주시 광산구청소년수련관은 세계지페인의 날(4월 2일)을 계기로 자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발달장애청소년들과 함께 오는 7일까지 '파란불 깜빡' 캠페인을 개최하고 있다. 캠페인은 발달장애청소년들의 그림과 종이접기 작품, 자폐 관련 도서 전시, 파란 풍선과 리본 달기 등의 행사로 진행된다.

<광산구청소년수련관 제공>

교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이용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서 발급

4월부터 장애인들이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으로는 무임태그 승차가 가능했지만, 새롭게 발급된 장애인등록증은 금융기능까지 겸비하게 된 것이다.

장애인등록증의 종류는 금융기능(신용카드·직불카드) 유무에 따라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과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으로 나뉜다.

신분증형에는 주민번호와 주소가 표기되지만 금융카드형에는 이 같은 내용이 표기되지 않아 장애인 확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장애인등록증을 지하철에서 사용할 경우 소 재지에서만 가능했지만 이달부터는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등록증 신청도 광주를 포함한 전국 6개 시도에서만 가능했는데 이달부터는 전국에서 발급 가능하다. 단 기존에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다가 금융카드형으로 변경할 경우 광주는 4월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전남은 6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받으며 복지포털(www.bokjiro.go.kr)·정부24(www.gov.kr) 등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해당 장애인등록증은 지하철에선 무임 승차가 가능하지만 타 교통수단에서는 돈을 내야 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국립생태원, 생태계 교란 생물 분포 현황 지도 배포

국립생태원이 습지보호지역의 생태계 교란 생물 분포 현황 지도를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도는 습지보호지역 3곳(광주시 장곡, 경남 고성 마동호, 고창 운곡습지) 일대에서 확인된 생태계 교란 식물 4종(가시박, 도깨비가지, 되재풀, 양미역취)의 분포를 시각화한 것이다.

지도에서는 생태계 교란 식물의 종별 분포 규모, 위치, 사진 등을 수록해 한눈에 습지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도는 지난해 국립생태원 주관으로 시민과학자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의 생태계 조사활동을 통해 만들어졌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지도를 지역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 국고보조금 신청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지도는 습지보호 지역의 시민과학자들이 연구에 참여한 결과를 지자체 및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공해 행정의 효율화를 이끌어 낸 모범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과학자들의 연구 활동이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등 지역 생태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영산강·섬진강 자전거길 점검 영산강유역환경청, 28일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오는 28일까지 영산강과 섬진강 자전거길 집중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의 목적은 268km에 달하는 자전거길 중추노선(영산강 129km, 섬진강 139km)의 노면포장 상태, 배수시설, 구조물, 교통안전시설, 안전간판 등 주요 시설물을 점검해 안전사고 발생을 막는 데 있다.

안전시설물 손상에 대해서는 응급보수를 실시하고, 예산을 확보해 급커브 위험구간과 오래된 자전거길도 점진적으로 정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국민들이 국가하천 영산강·섬진강 자전거길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